

드라마 같은 역전포 피말린 혈전 끝냈다



2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7차전 KIA와 SK의 경기 9회말 1사 상황에서 KIA 나지완이 끝내기 홈런을 치고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4일 KIA 이종범이 우승을 확정지은 뒤 선수들과 열사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야구팬 가슴 적신 사나이들의 눈물

사나이의 눈물이 야구팬들의 가슴을 적었다. 나지완의 타구가 잠실구장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순간 덕아웃에 있던 KIA 선수들이 일제히 그라운드로 달려나왔다.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질주하던 나지완의 표정이 1루 베이스를 도는 순간 바뀌기 시작한다. 3루를 돌아 홈으로 향할 때쯤 나지완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나지완 뿐만 아니라 홈에서 '영웅'을 맞은 동료들의 얼굴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백전노장' 이종범에서부터 최연소 한국시리즈 홈런의 주인공 안치홍까지 다 큰 선수들이 서로를 붙잡고 울음을 터트리자 관중석에도 눈물섞인 응원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곳곳이 팀을 이끌어왔던 조범현 감독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을 조력했던 프런트를 모두 눈물을 보였다. 나지완의 홈런 하나가 잠실구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가장 서럽게도 울었던 두 선수는 85년생 통감내기 나지완과 이용규였다. "지난 시간의 고생이 생각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나지완은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이용규도 평평 눈물을 쏟아냈다. 6차전 1회, 3루 도루를 감행하다

KIA, SK와 7차전 6-5 극적 역전승

12년을 기다려온 'V10'의 꿈이 마침내 이뤄졌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으로 6-5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2년만에 한국시리즈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09년은 타이거즈의 해였다. 3연패로 시즌을 시작한 KIA는 시즌초 최하위에 머물기도 했지만 로페즈·구토슨 '특급 용병'과 윤석민·양현종 등 신예 투수들이 버티고 있는 든든한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꾸준한 행보를 이어갔다. 8월2일은 KIA의 새 역사가 써진 날이다. 올 시즌 33개의 홈런포를 터트리며 1루를 굳건히 지킨 최희섭과 친정으로 돌아와 '해결사'로 인생역전에 성공한 김상현의 맹활약 속에 KIA는 8월2일 삼성을 4-3으로 누르고 2천516일만에 1위 자리를 올라섰다. 이후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KIA는 19연승을 달린 SK를 따돌리고 정규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12년만에 한국시리즈의 주인공이 됐다. 12년만에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은 '전통의 명문' KIA의 상대는 2007년과 2008년 한국시리즈를 독식한 '신흥 명문' SK. 1차전부터 양팀은 한치 양보 없는 승부로 프로 야구 팬들을 열광시켰다. 두 차례 승부를 뒤집는 적시타를 때려낸 이종범의 원맨쇼로 1차전을 잡은 KIA는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인 윤석민을

앞세워 안방에서 2연승을 달렸다. 하지만 선발 구토슨의 난조속에 3차전을 내준 KIA는 4차전에서는 3개의 병살타를 기록하면서 3-4로 주저앉았다.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 양팀은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 잠실별로 무대를 옮겼다. 1차전 승리를 선물한 로페즈는 22일 열린 5차전에서 더 매서워진 투구로 9이닝을 완벽하게 지킨 끝에 완봉승을 거두며 KIA의 발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까지 1위 자리를 추격했던 SK는 한국시리즈 우승컵도 쉽게 내주지 않았다. 선발 윤석민이 송은범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SK가 6차전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부는 7차전까지 이어졌다. 3만 관중석을 가득 채운 야구팬들의 뜨거운 함성속에 시작된 7번째 대결의 초반 흐름은 SK가 주도했다. 박정권의 투런홈런등을 앞세워 기선제압을 한 SK는 글로벌의 호투로 KIA 타선을 봉쇄했다. 1-5까지 점수가 벌어진 6회 '한방'이 꺼져가던 승리의 불씨를 살렸다. 나지완의 투런 홈런으로 추격을 시작한 KIA는 막내 안치홍의 솔로포까지 더하며 5-5로 승부를 되돌렸다. 숨막혔던 대결의 끝은 역시 홈런이었다. 3번 나지완이 채병용을 상대로 좌월 솔로홈런을 터트리며 4시간 27분간에 걸친 길고 긴 승부를 마무리 짓고 팀에 우승컵을 안겨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보너스 대박

우승 상금 25억2천만원... 역대 최고 정규리그 포상금 포함엔 최대 40억

올해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KIA 타이거즈는 사상 최대의 보너스 잔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KIA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25억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배당금을 챙길 전망이다. KBO는 포스트시즌 입장 수입 중 40%에 달하는 대회 진행비를 뺀 금액을 1~4위팀에 나눠준다. KIA는 정규시즌 1위를 한 덕에 20%를 먼저 받는다. 여기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면서 남은 배당금의 50%를 추가로 가져간다. KBO는 24일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포스트시즌에서 사상 최대인 70억4천803만3천원을 벌어들였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거둬들인 53억6천57만6천원이 역대 최고액이었다. KIA는 대회 진행비를 뺀 약 42억원에서 8

억4천만원 정도를 먼저 갖고 간다.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팀 몫으로 16억8천만원을 받게 때문에 배당금 총액은 약 25억2천만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SK가 가져간 역대 최고 배당금(20억6천217만8천285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선수단에는 모그룸에서 주는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우승 포상금이 더해진다. KIA 선수단은 한국시리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5억원의 정규리그 1위 포상금을 받은 상태다. 한국시리즈 우승 포상금 규모는 이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규리그 포상금과 같은 5억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당금과 포상금을 합한 우승 보너스는 최소 35억원에 넘으며 많으면 4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역시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너스다. 지금까지는 SK(2008년)와 삼성(2002년)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며 지급한 30억원가량의 보너스가 가장 많았다. 한편 2위 SK는 약 8억4천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끝내기 홈런에 이종범·이용규 등 '평평' 관중석에서도 눈물섞인 응원가 울려 퍼져

아웃이 되면서 SK에게 승기를 넘겨줬던 이용규는 7차전 득점 기회마다 부진했다. 5회 2사 만루에서 삼진을 당한데 이어, 7회 무사 1·3루에서는 유격수 앞 땅볼을 때려 홈으로 들어오던 3루주자 최경환이 아웃되는 등 세 차례 찾아온 득점기회를 모두 무산 시켰다. 한국시리즈가 SK의 우승으로 끝났다면 '역적'이 될 수 있던 상황에서 절친한 친구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이 나왔다. 부둥켜 안고 굶은 눈물을 흘렸던 두 친구는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앉아 통곡을 해 팬들을 울렸다. 노장 이종범의 눈물도 화제였다. 은퇴위기를 딛고 선 무대였던 만큼 특별했던 한국시리즈, SK의 거친 공세에 더욱 우승을 하고 싶었던 이종범은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6·7차전 그라운드를 지켰다. 이종범은 끝까지 마음 졸였을 후배 이용규를 꼭 안고 눈물로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올 시즌 LG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박기남의 눈물도 특별했다. 박기남은 한국시리즈에서 꼴판 벤치를 지켰지만 훈련시간에는 배팅투수를 자처하고, 덕아웃에서는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새로 동지를 둔 KIA 우승을 기원했다.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준 선수들과 KIA맨으로 받아들여준 팬들의 사랑 등 2009년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박기남의 눈물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a Insurance' (국제보험) featuring a horse and rider illustration. Text include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